

미리가본 西紀 2000年

氣象(株)의 誕生

西紀 2000年은 한마디로 地上樂園을 滿喫하고 있다. 지난 봄 全國 農民을 괴롭힌 가뭄같은 것은 옛 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비·눈·바람등 氣象調節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옛적 사명당이란 고승이 바람과 비를 마음대로 불러 일으켰다지만 西紀 2000年엔 尖端科學의 힘으로 氣象調節을 하고 있다.

인공강우의 成功은 이미 1946年에 結實을 보았다. 구름속에 드라이 아이스의 입자를 산포함에 따라 큰 눈이 오게 됐다. 이 같은 成功에 힘입어 노벨상 受賞者인 「어빈 랑그뮤어」博士는 뉴 멕시코에서 인공강우를 실제로 실현시키는데 成功을 거두었던 것이다.

이를 發展시켜 西紀 2000年에는 「氣象株式會社」가 世界 각 처에 설립되어 이곳에서 氣象調節 注文을 받고 있다. 따라서 氣象株式會社 창구에는 연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날씨 주문을 하기 위해 접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는 1백만원 어치의 비를 요구하는 農民, 2백만 원어치의 찬 바람을 원하는 商人, 맑은 날씨를 요구하는 體育團體등 各계각층으로부터 날씨 주문이 밀어닥쳐 氣象調節 담당자의 일손이 잠시도 쉴 틈 없는 가운데 氣象調節審議委員會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全國民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 연일 다른 審議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個人的 利益보다 國家의 利益이 우선되는 물론이고, 또한 보다 적은 경비로 보다 많은 이

익을 얻기 위해 産業分野別로 설치지역을 決定하는 問題가 오고간다.

그래야만 비가 필요한 지역에는 비를, 맑은 날씨가 필요한 지역에는 맑은 날씨를, 그리고 바람이 필요한 지역에는 바람을 보냄으로써 서로의 이익이 相衝될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매일 아침 國立氣象臺 회의실에서는 오늘 비를 오게 할 것인가 맑은 날씨를 만들 것인가를 놓고 심각한 분위기에 싸여 있다. 앞으로 10日동안만 맑은 날씨를 만들어달라는 體育會의 요청과 年中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여름철을 맞아 차질없는 電力生産을 위해 최소한의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電力公社측의 요구가 서로 팽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國立氣象臺는 운동경기가 없는 밤사이에 비를 내리도록 함으로써 이 問題는 원만하게 해결됐다.

農事의 革命

西紀 2000年은 밭農事에도 엄청난 革命이 일어났다. 하이포니카(Hyponica)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水氣耕培農法을 뜻한다. 農作物을 재배하되 예전처럼 논이나 밭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물 즉, 수조에서 키우는 것이다. 그렇다고 단순한 水耕栽培인 하이드로포닉스(hydroponics)와도 다르다. 적절한 溫度가 유지된 溫室에서 알맞은 일조량과 인공조명 밑에 적절한 영양액을 물에 공급해주고, 또 알맞은 空氣도 공급해줌으로써 밭이나 農土가 갖고 있는 갖가지 제약, 예컨대 가뭄이나 홍수 해충 흙의 산성화 土質이 갖는 영양부족 등으로 부터 農作物을 해

- …………西紀 2000년에 거는 기대는 실로 크다. 앞으로 14年 동안 科學文明은 지난…………○
- ……1世紀에 버금가는 發展을 가져와 西紀 2000년에는 상상치도 못한 事實들이 現…………○
- ……實化될 것이라고 야단들이다. ……………○
-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發展된다는 것인가. ……………○
- ……本誌 編輯者는 14年을 건너뛰어 西紀 2000年으로 달려가 보았다. ……………○
- ……西紀 2000年, 編輯者가 달려간 西紀 2000年은 과연 1986年을 살던 사람들이…………○
- ……야단을 떨만도 했다. 한마디로 發明科學文明 王國을 이루고 있었다. ……………○
- ……西紀 2000年의 모습을 스케치해 보았다. ……………○
- …………編輯者 註…………○

방시켜주고, 農作物이 갖는 본래의 生命力과 生長力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주자는 것이다.

그 결과 水氣耕栽培로 키운 토마토는 한 포기 of 토마토 줄기로부터 최대 6만개나 되는 토마토가 열릴 수 있게 되었다. 적절한 溫度 調節과 일조량(부족하면 인공조명)과 비료가 들어 있는 영양액에 의해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다수확 토마토 栽培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특별한 토마토의 종자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다. 보통의 토마토라도 管理만 잘 해준다면 年間 수만 개의 먹음직스런 토마토를 열리게 할 수 있다.

토마토 뿐만 아니다. 하이포니카 水氣耕栽培는 딸기·호박·오이·시금치 등등 어떤 農作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예컨대 오이를 심는다면 줄기 하나에서 6천6백 개나 되는 먹음직스런 커다란 오이가 자란다. 보통의 발농사라면 아무리 토질이 좋아도 20個 이상은 거둘 수 없다. 한줄기에 너무 많은 오이가 열리면 영양이 부족해서 짧고 작아져버려 商品價値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포니카 栽培法을 쓴다면 아무런 問題가 없다.

또 마스크멜론의 경우도 마찬가지. 보통의 農土에서라면 마스크멜론은 줄기 하나에서 하나만 열리게 제한을 하고 있다. 한 줄기에 둘 이상이 되던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영양소가 부족, 마스크멜론은 맛도 없거니와 크기도 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포니카 農法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줄기에 2백개까지 맛있는 마스크멜론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된다.

海洋牧場도 선보여

西紀 2000年代의 人類은 바다속에 집을 짓고 살기도 한다. 바다에서 食糧과 각종 地下資源 등을 얻을 뿐만 아니라 精油工場이나 기타 生産工場까지도 바다속에 건설하여 바야흐로 「海洋時代」가 열린다.

이는 地上에 살아야할 人口가 너무나 많고 地上에서 얻었던 온갖 資源이 점차 고갈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0年代의 人類은 바다를 生活의 터전으로 삼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다.

海洋牧場은 닭장 속에서 닭을 기르듯 바다에 그물을 치고 그물밖으로 고기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多量의 물고기를 기르는 방법과 소를 방목하듯 自然상태로 풀어두는 방법 등 두가지가 있다.

가두어 두고 기르면 관리도 잘 되고 채취도 쉽다. 그러나 많은 먹이 값이 든다. 어느 쪽이 더 經濟的인가는 물고기의 種類와 特性에 따라 다르다.

海洋牧場은 바닷고기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조개·게·해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海洋生物을 취급한다.

즉, 어느 경우의 海洋生物이라도 自然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더 많이 채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人爲的으로 養魚場에서 처럼 번식시키고 먹이를 주며 채소를 가꾸듯 管理한다.

또한 動植物의 品種을 改良하듯 바다의 生物도 보다 生産性이 크고 經濟的인 높도록 品種이 改良된다.

한편 海洋牧場에서는 잘 훈련된 돌고래가 人間을 대신하여 管理 책임을 맡아 눈길을 끈다.

海洋牧場에 세워질 구조물도 다양하다. 海中植物들의 번식률을 높이기 위해 바다속을 환하게 비치는 인공 수중 태양도 있다. <8>